

박삼구회장 그룹 재건 완수하나

오늘 금호타이어 본입찰...中 4곳 등 총 5곳 참여

1조원대 매각대금 조달 부담...우선매수권 행사 관심

금호타이어 매각 본입찰(12일)을 앞두고 참여 업체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인수의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입찰에는 예비입찰자 중 본입찰 참가 자격을 획득한 링롱타이어, 더블스타, 상하이에어로스페이스인터스트리, 지프로 등 중국 기업 4곳과 인도 아폴로타이어 등 5곳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채권단 관계자는 “예비입찰자들의 금호타이어 인수여부는 상당히 강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예비입찰 참가자들이 써낸 가격은 평균 주당 1만5000원선으로 1조원 안팎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금호타이어는 중국 등에 현지 공장을 갖고 있어 중국 기업의 인수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자국내 타이어 공장을 추가로 짓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관건은 우선매수청구권을 갖고 있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이들 5곳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내는 곳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채권단 안팎에서는 본입찰 입찰가격이 1조원 안팎 수준일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12일 본입찰 마감으로 인한 매각가가 결정되면 박삼구 회장이 가진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박 회장이 그간 그룹 재건의 방적으로 ‘금호타이어 인수’를 외친 만큼, 이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박 회장이 넘어야 할 산은 녹록지 않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을 제3자에게 양도·지정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박 회장이 금호산업 인수 때처럼 계열사 자금을 활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박 회장 개인의 신용과 담보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 회장은 금호산업 인수 당시 12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했고 나머지 6000억여원을 차입과 자본유치로 조달해 현재 부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 때문에 100% 지분을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재무적투자자(FI)를 끌어들여 뒤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이렇게 조달한 자금은 박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마련한 돈에 해당해 채권단 약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금 마련의 부담을 안은 박 회장으로서 본입찰이 최대한 낮은 가격에 성사되는 게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다.

산은 인수 희망가격이 만족스럽지 않아 유찰시키고 박 회장과 직접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가격 협상을 새로 해야 할 일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만일 산은이 매각 작업을 아예 무산시키고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 후에 다시 매각을 진행하기로 하면 박 회장은 그룹 재건의 꿈을 잠시 미뤄야 한다.

한편 12일 금호타이어 본입찰은 오전 11시 마감하며 13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효성, 세계 최대 아웃도어 마켓서 기능성 원사 선보여

美 리테일러 윈터마켓 참가
발열·땀 흡수·악취 제거 등
각국 바이어들 높은 관심

효성이 오는 12일(현지 시각)까지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진행되는 ‘아웃도어 리테일러 윈터 마켓 2017(Outdoor Retailer Winter Market 2017, 이하 OR쇼)’에 참가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로 31년째를 맞이한 OR쇼는 독일 스포츠 운동용품 박람회(ISPO), 독일 아웃도어 박람회(European Outdoor Trade Fair)와 함께 세계 3대 아웃도어 전시회로 꼽히며, 매년 여름과 겨울에 한 차례씩 열린다.

효성 나일론폴리에스터원사 사업부는 고기능성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원사를 대거 선보였다. 폴리에스터 원사 ‘에어로히트’는 미세한 물질을 빚어 흡수해 열에너지 방출하는 발열 소재로, 폴리스와 레깅스 같은 겨울 의류에 활용될 수 있다. 나일론 원사 ‘아쿠아엑스(aqua-X)’는 피부와의 접촉면적을 넓힌 단면이 효과적으로 열을 흡수하며 UV차단 기능도 탁월해 여름철 야외활동에 적합하다. ‘로빅’은 높은 강도와 내구성, 내마모성이 있어 가방 및 작업복, 재봉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효성이 ‘아웃도어 리테일러 윈터 마켓 2017’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에게 효성의 원사와 원단을 설명하고 있다. <효성 제공>

스판덱스 사업부에서는 나일론폴리에스터 원사와 스판덱스 원사를 결합한 원단을 전시해 관람객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땀냄새 같은 악취를 없애는 기능의 스판덱스 ‘크레오라 프레쉬’와 나일론 ‘아쿠아엑스’를 결합한 원단,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시키는 ‘흡수속건’ 기능의 보온 소재 ‘에어로워’와 ‘크레오라 파워핏’을 결합한 원단 등을 선보였다.

효성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은성텍

스, (주)동화텍스타일, (주)실버텍스와 공동으로 부스를 구성하고 고객사의 만족과 영업을 지원해 동반성장 가치를 실현했다. 전시 기간 동안에는 나이키, 리복 등 세계적인 스포츠웨어 브랜드와 제품 개발 미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시회가 끝난 이후에도 빅토리아 시크릿 등 유력 브랜드를 방문해 글로벌 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이코노 & 비즈피플

정민식 KEB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장

“지역 밀착형 금융정책...경제 활성화 최선”

리스크 관리로 금융위기 탈출

지역인재 적극적으로 채용

직원간 존중·배려 문화 조성

“지역민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 인재를 키우는 KEB하나은행호남영업그룹이 되겠습니다.”

KEB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 정민식 그룹장은 지역사회에 한 축을 담당하는 은행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역 밀착형 정책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경제에 도움을 주고 지역 인재들이 ‘뱅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것이다.

정 그룹장의 남다른 지역 사랑은 그의 이력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는 광주상고를 나온 뒤 은행에 입사해 35년 만에 호남영업그룹을 책임지는 자리에 오르며 ‘지역 은행가의 신뢰’를 쓰고 있다.

그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KEB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은 최근 이 지역 인재 17명을 신규 채용했고, 지난 4년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20억여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또 정 그룹장은 지난 8년간 인재육성 센터에서 은행 취업을 앞둔 젊은이들을 위한 재능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정 그룹장은 “인재육성센터에서 만난 대학생들이 실제 은행 취업에 성공한 뒤 감사 인사를 할 때 보람을 느낀다”면서 “지역민과 피부로 접촉해야 하



는 은행원 특성상 지역 인재들이 은행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EB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은 올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정 그룹장은 “국내 정국이 불안하고, 기업구조조정과 부동산 시장의 정체, 과도한 가계부채,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한 뒤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과 계획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도 “가계부채의 경우에도 상당 능력을 먼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10 Up, 10 Down’과 ‘손님창출 및 손님관리 혁신’, ‘소통의 달인 만들기’를 올해 영업 전략으로 내놨다.

‘10 Up, 10 Down’은 철저한 주인정신에 입각해 생존마진을 확보하기 위한 마인드를 재무장함으로써 이익은 10% 올리고 비용과 리스크는 10% 낮추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시장개척을 위해서도 동네영업 활성화와 외국인 근로자 전문은행 이미지 정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전남 외국인 수 증가로 외국인들이 쉽게 고국에 돈을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외국인기업이 광주·전남지역에서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원스톱 금융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외국인기업의 지역 내 투자는 고스란히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KEB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은 이에 집중하고 있다.

정 그룹장은 “지속 가능한 기업 문화를 정착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야 할 때가 됐다”면서 “직원 간의 소통을 통해 발전하는 은행을 만들고, 지역 단체와 기관 등과도 밀접하게 소통해 지역 발전을 이끄는 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

실업자 지난해 첫 100만명...청년 실업률 역대 최고

취업자 전년보다 30여만명 ↓

지난해 실업자가 100만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6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취업자는 2623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9만9000명 늘었다.

취업자 증가 규모는 지난해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목표로 잡은 30만명에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해 말 수저 전망한 29만명보다 많은 것이다. 그러나 연간 기준으로 보면 7년2천명 감소한 200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적었다.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인원은 2013년 38만6000명에서 2014년 53만3000명까지 늘었다가 2015년 33만7000명으로 줄어든 지난해 또 줄었다.

실업자는 101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6000명 증가했다. 실업자 통계가 바뀐 2000년 이래 실업자가 100만명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업률은 0.1%포인트 상승한 3.7%였다. 이는 2010년 3.7% 이후 가장 높다.

청년층 실업률은 9.8%였다. 청년 실업률은 2015년 9.2%로 역대 최고로 치솟은 데 이어 1년 만에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작년 전체 고용률은 0.1%포인트 상승한 60.4%였다. 고용률은 2010년 58.7%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

월 취업자는 2616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28만9000명 늘었다.

월간 취업자 증가 인원은 지난해 10월 27만8000명에서 11월 33만9000명으로 늘었다가 다시 20만명대로 떨어졌다.

제조업 취업자가 11만5000명 감소해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 인원은 2009년 9월 이후 가장 감소 폭이 컸던 지난해 10월과 같은 수준이었다.

실업률은 3.2%, 청년층 실업률은 8.4%로 모두 전년 동월과 같았다. <연남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75.17 (+30.05) ▲ 금리 (국고채 3년) 1.65% (+0.01)
- ▲ 코스닥 637.90 (+1.17) ▲ 환율 (USD) 1196.40원 (+1.80)

대한골프협동조합과 함께 골프, 리조트 한번에 다 누리세요!!

대한골프협동조합

회원가입 절차

*신청서 작성 (팩스, 카톡, 문자 가능)
*년회비 (130,000원)

회원가입 혜택

*제휴 골프장 및 리조트 할인혜택
*제휴 골프용품 할인혜택
*국내, 해외 골프투어

대한골프협동조합

골프장 선불회원 컨설팅 사업

국내외 골프투어

지역사회의 공헌사업

골프문화 육성/골프문화 지원

국내 최초 골프협동조합 탄생!!

보성CC, 디오션, 함평엘리체, 제주, 고창

레저 이용혜택!!

엘도라도리조트, 무주로비스콘도, 서해안변산, 서해안대천, 담양메타펜션, 제주골프빌, 화순, 속초, 제주, 송두 금호리조트

KGC 대한골프협동조합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8(치평동 890-12) | ☎(062) 371-1800 · 010-6270-1879

특허방수

특허/제10-1097784호
특허/제10-0562035호
특허/제10-0548189호

2중안벽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상 내열성

6년 무상 A/S

한국방수시험연구원 2차 KRC008-24호에 의거한 방수성능시험 합격 제품!

5년 이상 불로 가열해도 물이 서면 타고 번져 들어가지 않는 실험 동영상 캡처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홈페이지 패턴검색을 통해서 만나보세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C / 겨울철 실내온도: 3~5°C

전기로 30~40% / 난방비 15~20% 절감

냉난방비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명예홍보이사 탤런트 이영후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www.ipalg.co.kr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